

PA-73

남부지역 벼 재배 시 고온에 따른 품질 변화성덕경^{1*}, 남진우¹, 이성태¹, 최용조¹, 홍광표¹¹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 경상남도농업기술원**[서론]**

2018년 7월 6일부터 4일간 남부지역 진주의 평균기온은 20.2~24.6°C로 평년보다 4.5°C 낮았고,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의 최고기온 평균은 34.3°C로 평년보다 2.8°C 높아 저온 및 고온 현상이 발생하였다. 영양생장기 저온은 모 생육을 지연시키고, 활착 불량, 분얼억제 등으로 생육을 지연시킨다. 생식생장기 및 출수기의 고온은 불임발생을 증가시키고, 등숙기의 고온은 심·복백립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 쌀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출수 전후의 고온이 이앙시기별로 벼 품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생종 11품종(화왕, 조평, 금오, 삼백, 운광, 백일미, 중모1032, 진옥, 해당쌀, 그루, 조운), 중생종 4품종(화영, 품미, 만중, 하이아미), 중만생종 11품종(칠보, 미품, 남평, 영호진미, 삼광, 진수미, 신동진, 새누리, 호품, 진백, 수광)을 3시기(5월 10일, 5월 25일, 7월 10일)로 이앙된 연구포장에서 품종별 등숙률, 현미 정립률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이앙시기별 등숙률 차이가 적은 품종으로 조생종 중에는 조운, 진옥, 백일미, 중생종은 품미, 중만생종 품종은 칠보, 진수미이었다. 7월 10일 이앙에서 등숙률이 낮은 품종은 조평, 삼백, 운광, 신동진이었다. 현미 정립률이 90% 이상인 품종은 5월 10일 이앙 시 칠보, 미품, 5월 25일 이앙에서는 화왕, 칠보, 진백, 미품, 진수미이었다. 7월 10일 이앙에서는 하이아미와 신동진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을 보여, 칠보와 미품은 3시기 모두 양호한 품질인 것으로 조사되어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벼 품종육성의 기초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사]

본 연구는 경남지역 벼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 및 신품종이용촉진 사업(사업번호: PJ0065032019)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주저자: Tel. 055-254-1223, E-mail. sdk201@korea.kr